

을 隸藥院에 女醫로 불러드려 馬匹을 下賜하시어 그의 所願을 이루게 하
 시었다. 萬德이 漢陽과 金剛山 探勝을 마치고 濟州道로 歸巢하러 하며
 當時의 鄕大夫들이 그의 德行을 讚揚하며 詩를 지어 惜別을 紀念하였는
 데 이 「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는 檢書官이었던 楚亭 朴齊家先生이 萬德
 에게 書贈한 詩文으로 正宗二十一年 丁巳(西紀一七九七年)에 先生이 四
 十八歲時에 長慶橋 西쪽에 있던 解語書齋에서 撰並書하신 것이다. 長慶橋
 는 現서울 大學校 文理大 앞 큰길에서 東崇洞 大學官舍로 들어가는데
 작으나한 洋灰다리가 놓여있는 附近에 있었으며 解語書齋는 詩人墨客들
 이 出入하던 어떤집의 書齋를 이름인지 알 길이 渺연하다.

先生은 詩文은 말할 것도 없고 書畫도 뛰어난게 잘 하였으며 奎章閣에
 檢書官으로 選任되여 李德懋 柳得恭 徐理修와 더불어 世稱 四檢書로 그
 이름이 中國에까지 떨치었다.

送萬德歸濟州詩有小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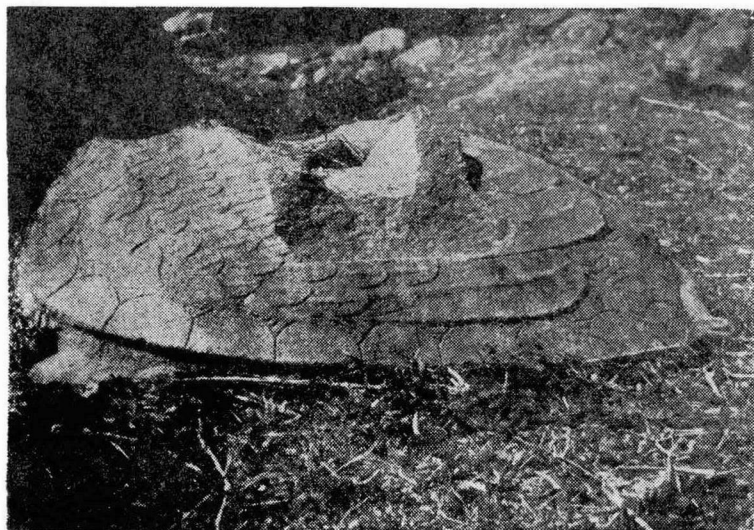
歲乙卯耽羅大餓。女人萬德。捐粟振民。問奚願。願見金剛山。山在江原
 道淮陽府。距本牧水陸二千餘里。故事島中女。母過海。上奇其志。以女醫。
 召隸藥院。給驛遞。以成其願。聖人之體下。匹婦之獲所。古無與比。萬德
 由此名動播紳間。嗟乎。使萬德而男子乎。即不過假三品服。用萬戶印綬而
 止耳。惡能必傳於世哉。惟其掃蛾眉而活千命。抗脂粉而涉滄溟。朝京闕。
 訪名山。入世出世。綽有風致者爲可貴耳。萬德目重瞳。蓋異相也。豈佛心
 仙骨有夙世之種者歟。於其歸贈之以詩。
 大寶海外頭不出。五嶽誰能昏嫁畢。毛羅爲島界樽桑。屋主千年僅貢橋。橋
 林深處女人身。意氣南極無飢民。爵之不可問所願。願得萬二千峯看。翠表
 雲鬢一帆峭。弧南所照回一天笑。催乘駟騎向烟霞。佛日仙風環珮耀。眞覺
 新羅一念通。異相巾幗符重瞳。從知破浪乘風志。不是桑弧蓬矢中。
 丁巳夏季之三日貞姦居士書于長慶橋西解語畫齋

保寧 聖住寺址의 逸名塔碑

李 殷 昌

이 곳 中央殿址 西北便에 朗慧(無染)國師碑(國寶三二號)가 있는데 講
 堂址 後側에도 破壞된 龜趺와 螭首가 있어 또 하나의 塔碑로 推定된다.
 龜趺의 地臺石과 足部는 埋沒되었었고 頭部와 碑座는 殘石조차 찾아볼 수 없
 다. 龜甲周緣에는 半

圓紋이 連續되고 그
 안으로는 後面에 二
 重六角紋이
 前面에는 羽翼紋이
 彫刻되었으며 竝리
 는 左側 後足部에서
 나타나 背甲에 붙어
 있다. 이와같이 水
 禽의 날개를 表示한
 龜趺의 遺例는 특히
 注目할만 하다. 螭首
 註는 長方形으로 卷
 雲과 蟠龍이 뒤트는
 모습을 高內刻하였
 는데 正面 中央에는
 卷雲사이로 望月이
 떠 있는 것 같이 圓
 이 浮彫되었으나 題
 銘은 없다. 寺址古



老에게 물었더니 碑身이 數十年前에는 굴러있었다고도 하고 埋沒되었다고도 하므로 確實하지는 않다. 그런데 寺址에 現存하는 三層石塔 三基가 墓塔으로 推定된 바도 있어 그 中의 一基를 上擧한 無染大師의 白月葆光塔으로 想定한다면 殘餘二基中의 一塔은 이 逸名塔碑와 有關될 수도 있을 것이며 후시 大師의 法統을 繼承한 高僧의 塔碑로 解釋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年代는 彫法과 樣式에서 羅末麗初頃으로 推定하는 바이다.

(註) 이 螭首만은 昨年에 扶餘博物館으로 移置되었는 바 龜趺의 保存策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附記) 이곳에서 高麗在銘平瓦를 拾得하였는데 「聖住寺佛堂華」라 陽刻되었다.

公州의 石獅 二軀

金 永 培



公州邑 鳳凰洞 二二七番地 洪寬杓氏宅 玄關兩側에安置되고 있는데 約三十三年前에 庭園을 꾸밀 때 入手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邑內 中洞 道立病院 後方에서 搬移된 것이라는데 그곳은 客舍境內라고 傳하고 있다. 石獅의 現狀은 모두 前後足

을 缺하고 頭部와 胴體만을 남기고 있는데 거의 同大同形으로서 後足은 힘있게 버티고 前足은 무엇인가 받치고 있었던 것과 같다. 모두 고개를 들어 正面하였고 南側은 齒牙를 보이며 北側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數例現存하는 雙獅石燈의 竿柱로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으며 雙으로 門柱나 石階같은 곳에 裝飾用으로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그 年代는 高麗 또는 그 以前까지 올려볼 수도 있을 듯하다. (크기는 南側것이 長 八四cm 高 五三cm 北側것이 長 七五cm 高 五一cm)

寧越 武陵里的 靑石塔과 磨崖坐佛

鄭 永 鎬

寧越郡 水周面 武陵里에서 法興里를 向하여 約二km 되는 地點 左便江岸에 자리잡은 「遂禪亭」前庭에는 靑石塔과 磨崖石佛各一이 遺存하고 있다.

一、靑石塔(寫眞 다음장 上)

原位置로서 身·蓋를 거의 具存한 稀例이다. 全高는 一六〇cm로서 花崗石의 基壇部(高 八〇cm)와 黑色粘板岩의 塔身部(高 八〇cm)로 兩分된다. 單層基壇으로서 一邊長 一一〇cm의 方形地臺石上에는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一段의 받침을 刻出하였고(一邊長 八〇cm) 中石(高 四五cm 幅 六四cm)各面에는 隅柱(幅 九cm)와 撐柱(幅 一五cm)를 刻하였는데 一邊長 九〇cm의 甲石은 倒置되어 있다. 現存六層으로 屋身은 第一層만이 缺失되었는데 立적이 倒壞되었을인지 破損이 甚하며 順位도 整然하지 못하다. 屋蓋마다 二段의 얇은 角形받침이 있고 上面에는 一段의 塔身받침이 있는 바 그 上下面에는 모두 屋身の 넓이만큼 方框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屋身の 固定을 위한 처음보는 手法이다. 屋蓋의 두께가 얇고 落水面은 平薄하며 四隅의 轉角이 返轉되어 매우 輕快한 作風을 보인다. 屋身の 各層이 一石으로서 各面마다 三處에 圓圈內 梵字(例컨대 五層南面은 ㊸ ㊹ ㊺)를 大線으로 陰刻하였는데 이것 또한 처음보는 手法으로 특히 注目되었